

썸7. 일하는 여성이 힘을 가지려면?

성노동자도 피해자일 때가 있고 피해자도 노동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정체성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를 인지했을 때 그때 비로소 힘을 가지고 대응하고 저항할 수 있는, 또 주변에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성노동과 조합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매매 방지법이 가진 효력은 여기까지인 걸로 족할 것 같다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방지법 자체를 싫어, 없애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할 만큼 한 거 같고, 효력도 떨어져가고, 경찰력도 나 몰라라 출동 안 해주고. (어, 빗탕감 그런 건 놔두고~) 이 유효성이란 게 여태까지 언니들이 피해를 피해로 인식할 수 있게끔 서포트 해주는 상담소들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성노동 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한 효과는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상담소는 이 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이후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성매매방지법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법이 아니잖아요. 가장 큰 오류가 성을 판매한 여성도 처벌 받을 수밖에 없게 한 것이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의 비범죄화,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판매행위로서의 여성을 처벌하는 방지법을 의미화하는 작업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 남성들이 가질 수 있게, 여성들만 비범죄화 하자 그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법보다) 진짜 여성들이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조직화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수요들은 이제 업소나 산업형 정도잖아요. 저는 매일 채팅사이트 들어가거든요. 진짜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많아요. 조직화할 수 없는. 비정기적이고.

- 언니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과연 노동자

로 명명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힘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죠. 점점 더 자본이 세지고 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해지는데 그런데 과연 언니들한테 노동자라고 얘기했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노동자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로 뭔가 멈출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과연 성판매 여성들이 무기로써 나는 성판매를 안하겠다고 파업을 한다한들 이 사회가 위협을 느낄까 하는 거죠.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열혈 조합원과 성매매의 속성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이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 금지해서가 아니라 대등한 지형에서의 의견대립은 해 볼 만도 하다. 지금은 아예 모든 길이 막혀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게 조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사이트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아니아니, 눈에 보이는 업소 중심의 성매매는 조직화하자하면 상담소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해보자! 방지법 없어지기 전에(웃음) 거대하게 해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업소를 끼고 있지 않은 자영업태의 인터넷 성매매가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이트 매일 들어가면 쪽지가 쏟아지는데, 제가 침대아이디를 쓰거든요(웃음).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과 성을 매개로 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여자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애네들의 조직화는 쉽지 않겠다. 한번쯤 해보고는 싶어요.

-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냐 하는 문제는 회의를 갖는 게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일단 돈을 버는 게 보통 범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에 노출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노동을 안 한다구요. 산업구조적인 측면을 본다면, 도둑을 보고 노동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행위는 하지만. 우리가 노동이라고 할 때는 그 행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성노동이라고 하는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엔 특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보편화 시킬 순 없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도 청소년

들이 와서 위기청소년지원센터, 하거든요. 열다섯, 어리면 열세살. 정말 걱정스러운 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식으로 돈을 한번에 20~30씩 벌면. 공장을 가서 돈을 벌거나 그런 것들을 할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걸 갖게 되고 성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직장생활하고, 노동 자체가. 뭘 하든 간에. 노동이라고 명명하는 그 행위를 할 때 갖고 있는 뭔가를 갖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노동을 너무 미화시키나요?

- 그러네요(미화시키네요). (일동 크게 웃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노동으로도 많이 피해를지는 것 같은데.(조직문화 얘기해야 겠네요. 하하)

- 성매매 일 하기 전에 2008년도에 청계천에서 반성매매 캠페인을 하는데, 건너편에서 비정규직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성매매를 합법화하라, 관공단체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왜냐면 집회장소가 겹쳤기 때문에. 여기는 캠페인이니까 구청에다 신고하고 저쪽은 집회니까 경찰에다 허가받고 이래서 겹친 거죠. 저쪽에서 봤을 땐 저것들이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관변단체에서 온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거죠.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비정규직을 향한 끝없는 애정을 갖고 있는데(웃음). (사회의 진보인데) 왜 저러실까. 반성매매운동이건, 성매매판이건 활동가들이 정말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성소수자 운동을 닦아야하지 않을까 해요. 많이 드러내고 많이 연대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반성을 했거든요.

(수많은 소수자 중에서 성소수자를 생각한 이유는?)

성소수자도 이 사회에선 굉장한 약자잖아요. 성판매 여성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집회에 나왔을 때 이 분들에 대한 비난도 많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드러내고, 연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는 무지개깃발이 반값등록금집회에 큰 차지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고 저 사람들을 나와 같은 동지로 인정하면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성매매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 우리 나라 흔히 진보적이라고 하는 당에서 성노동자를 얘기하는 게, 남성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요?

- 남성 많은 건 모든 당이 다 그렇죠.

- 진보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노동, 성매매 합법화를 얘기하는 것은 남성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여성주의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 민노당도 그렇고 진보신당도 그렇고 청소년분과도 있고 성소수자분과도 있잖아요.

- 구색을 맞추는 거죠. (일동 술렁~!)

- 성노동자부분을 지지하는 면에서는 저와 다른 생각이지만, 그 외 여타의 진보 정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진짜 진보적이고 훨씬 더 급진적이고 성소수자운동이며 관점도 오히려 더 비판적이고 관찮죠.

- 우리나라 사회에서 진보적이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여성적인 부분에 대해 폐쇄적인 부분 있잖아요.

- 제가 느낀 소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성노동을 지지하고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주의에 대한 반발심이나 남성연대로서 공격하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본적인 문제제기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좀 달랐을 뿐이지 그 논리의 과정이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 저는 회비 내는 진보신당 당원인데요(일동 웃음), 정당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사회단체, 운동의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골고루 발전했으면 싶고. 성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논리와는 다르다고 봐요. 여성들의 행위성,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정치화하는 것.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하는 것과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 근데 너무나 하나로만 얘기되잖아요. '성노동자를 지지함 = 성매매합법화'. 이 걸 좀 뜯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뭔지, 니가 말하는 1,2,3을 적어봐. 합법화는 도대체, 합법화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고 어떤 게 합법화인지도 다양하고. 서로가 중첩될 수도 있고, 반성매매 운동과도 맞는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한 번 까보자. 내

가 지지하는 성노동자 운동은 뭔가. 뭘, 어떤 부분을 지지하는가. 합법화를 반대한다면 어떤 부분을 반대하는지 나열해보자. 그래서 맞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뽑아내보자.

썸8. 하루아침에 추려질 문제가 아니더라.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혹시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시고 싶으실까요? 어떠신지.

- 오늘도 나온 얘기가 스펙트럼이 너무 넓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성매매 운동 단체들이 일상에서 이런 담론이나 토론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원 사업에 매몰되다시피 하잖아요. 별도의 이런 작업들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의 성노동 경험이 있는 여성주의 활동가를 만났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무조건 무엇을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성노동이라는 단어를 물 위에 오르게 하는 게 목적의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취사선택 할 수 있고 어떤 것에 가치부여 하고 싶은 지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상담소 활동가들과도 얘기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도, 여러 투쟁사업장과 연대하고 있는 사회당하고도 어떤지 들어보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정리발언으로?

- 성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살펴보니까 지금 매춘 일을 하는 여성들의 행위만 성노동이 아니라 결혼해서 어머니의 역할, 애인관계에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행위 자체를 성노동이라고 개념화하더라고요. 그런 전체적인 거를 성노동으로 이해하고 여성의,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성적 행위성을 성노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드러내서 여성들 간의 연대나 여성들의 행위성을 더 정치화하는 의미로서의 성노동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의미와 구분해서 살

펴봤으면 좋겠다.

- 그런 의미에서 개념화하는데 아직까지 성노동자는 받아들이기 좀 그래요. 성노동자라고 하면 피해자라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성노동자라고 명명하게 된, 성노동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 영등포 시위사건을 보면서 기사 스크랩해 보니까 ‘뭉치’와 ‘지지’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더라구요. 둘 다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덜 의식화된 집단이고 이 사람들은 뭔가 어떻고 이게 아니잖아요.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서 탈성매매를 하기 원한다면 이것도 지지해 줘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이다 라고 명명하지 않고도 안에서 성판매를 하는 여성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게 중요한 문제다. (어떻게 쥐어줄까요?) 성판매 때 여성들이 비범죄화가 되어야겠죠. 개별적인 사건들로 폭행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여성들이 보호받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 여성들을 비범죄화할수 있는 논의를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 여성들의 권력화가 근데, 조직화가 집단화로 다 실현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성매매방지법 자체도 어찌면 여성들이 이용해먹는, 개별적으로는 전략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업주)니가 이렇게 하면 나 다 (방지법으로 고소하거나) 이렇게 해버릴 거야. (업소를) 다 털어버린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성매매방지법이 다 문제되지 않고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권력을 주는 현상도 있다.

- 법이 7주년인데 개정되어야 한다면 강력하게 업주와 소개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

- 어쨌든 지금은 방지법이 있는 게 유효하다는 생각이예요. 그걸 줄이면서 여성들이 그나마 기반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여성들과 그 안에서의 구체적인 내용

들은 놓치고 간 것 같아요. 겉에만 보고 안을 못 본 것 같아요. 여성들의 권리는 어떤 게 있는 건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들과 상담할 때 지원의 대상으로 상담하는데 여성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고 탈성매매한 여성들은 자기 기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빨리 마련해야 하는데 고민만 되고.

- 저는 오늘 참 좋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토론하는 것 좋아하는데 동료 상근활동가가 없어서 그런지 동료에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 않아서 외로웠나봐요. 1회 녹취록을 보면서 나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2회의 주제를 보면서 딱히 할 얘기가 마땅히 떠오르진 않지만 신청한 걸로 보아 ‘아 내가 되게 외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일동웃음). 좋고, 감사합니다.

썸9. “오늘의 수다가 내일의 연대로”

다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구요.

오늘의 MVP “내가 제일 잘 나가”상 : 참숯님~

수다회, 꿈이 번지다...

이번 수다회에서는 여성주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성매매 피해 지원 활동가들과 함께 했습니다. 반성매매 담론이 겪는 역사적 충돌과 대립을 통해 드러나는 오해들에 대해 짚한 수다를 진행하려 했는데, 잘 되었는지는 다음 수다회를 통해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는 ‘성매매 자체를 죄악시키는 거냐, 단속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모든 여성을 피해자화 하는 거냐’ 등의 시선과 질문들에 헛웃음만 나오는 마음들을 다시 잘 모두어 새로운 활동의 힘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 활동에서 피해 담론은 어찌면 당연한 동력으로 작용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담원의 피해 지원 활동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성노동자의 피해 드러내기와 지원활동의 길은 노동권 운동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다시 확인합니다. 반성매매 운동과 성노동자 운동이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발상은 피해자화의 함정을 명징하게 꿰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니들과의 연대 : 현존하는 성노동자 언니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활동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지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누구이며, 반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이고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언니들과의 연대를 꿈꿉니다.

그리하여 여성들의 주체성이 현재의 성매매지형을 바꿀 수 있길 바라고,

가장 크게는 여성을 포함한 누구나가 자유로운 세상을 여전히 꿈꿉니다.